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흐렸다 맑음

제목 : 서울랜드

동네 친한 언니들과 서울랜드로 갔다. 가서
 매표소에는 개구쟁이 열차를 탔다. 줄이 길어서
 많이 기다려야 했지만 빨리 탔다 타고 있을
 때 엄마는 범버카에서 줄을 서고 있었다.
 개구쟁이 열차는 내려 갈때 좀 무서웠고
 파루건 재미있었다. 범버카도 박치기를 하니까
 더 재미있었다. 3번째로는 알포스윙을 탔다.
 알포스윙은 도는건데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
 다 해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밤을 먹고 사슴
 썰미를 탔다. 사슴 썰미에는 빨라서 재미있
 었다. 그리고는 X플라이어를 탔다. 360도 회전
 하는건데 무서우면서 재미있었다. 6번째
 는 블러홀을 탔다. 블러홀은 내려갈때가
 제일재미있었다. 도는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재미있었다. 7번째는 은하열차999를 탔다.
 그건 짧았지만 탔것 중에서 제일재
 미있었다. 8번째로는 달나라 열차를 탔다.
 내려갈때 별로 없었지만 재미있었다.
 마지막에는 금류타기를 탔다. 금류타기는 물에
 서 배를타고 떠다니는 것이다 높은곳에서 내려
 올때 사진을 찍는다. 그때 물이 많이 튀어
 서 다맛있다. 오늘은 재미있는 하루다.